+

입추 무색 '찜통 더위'···동물들 '얼음 특식'·'샤워'로 피서

우치동물원 여름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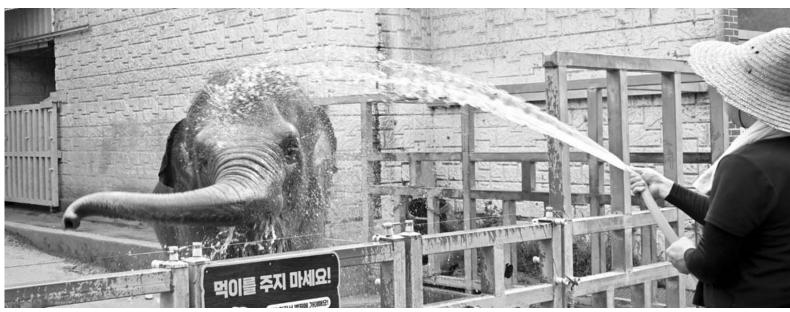
수박·사과·죽순 등 함께 얼려 코끼리·원숭이·곰 등에 제공 사육사들 시원한 물줄기 서비스 맞춤 간식·행동 풍부화 '눈길'

"동물도 똑같이 지치고 힘들죠. 그래서 사람 처럼 특별한 음식과 시원한 물로 기운을 돋워주 고 있습니다."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입추(立秋)인 7 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 북구 우치동물원. 절기 가 무색하게 체감온도가 이미 31도에 달했다.

사육사들은 아시아코끼리 봉이(27)와 딸 우리(1 5)가 있는 울타리 안으로 수박과 사과, 파인애플, 죽 순등과일이꽁꽁언얼음덩어리를 넣어줬다.

이를 본 봉이와 우리는 빠르게 달려와 얼음 덩 어리를 발로 깨기 시작했다. 그러다 얼음 조각 사이로 과일이 나오자 봉이는 우리가 먹을 수 있 도록 밀어줬다. 잠시 후 봉이도 당근과 단호박을



최근 비가 쏟아짐에도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7일 광주 북구 우치동물원에서 코끼리가 사육사가 뿌려주는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골라 씹으며 커다란 귀를 펄럭거렸다.

모녀 코끼리가 얼음 특식을 먹는 동안 사육사 들은 시원한 물줄기를 뿌려줬다. 봉이와 우리는 몸을 돌려가며 샤워(?)를 했고 입을 활짝 벌려 물을 마시기도 했다.

우치동물원은 매년 7-8월 무더위에 지친 동물

들의 여름나기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육사들은 코끼리를 시작으로 라쿤, 물범, 원 숭이, 곰 등 다양한 동물들의 우리를 찾아다니며

맞춤형 간식과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은 더운 날씨에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치공원 측에서 각 동물의 특성에 맞게 만 든 것으로 '즐겁고 건강한 식사'에 초점이 맞춰 져 있다.

소맹수사에 있는 미국너구리과 동물 코아티 를 위한 특식은 비타민과 엽산 등 영양제가 발라 진 식빵이었다.

이를 통해 영양제를 잘 먹지 않는 개체들도 자연 스럽게 섭취할 수 있다는 게 우치공원의 설명이다.

지난 6월 새롭게 설치된 미스트 분사기 아래 서 휴식을 취하던 라쿤 다섯마리는 사육사가 닭 다리를 던지자 앞다퉈 달려들었다. 한 조각에 라 쿤 두마리의 앞발이 동시에 닿자 서로 먹기 위해 입으로 줄다리기를 하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해양동물사의 물범에게는 살아 있는 장어가 공급됐다. 물범들은 이를 먹기 위해 수조 안을

우리와 봉이 모녀처럼 낙타에게도 맞춤형 간 식과 물줄기 샤워가 제공됐다.

얼음 과일 덩어리를 받은 원숭이와 곰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특식을 즐겼다.

덩어리로 부숴서 삼키는 곰들과 달리 상대적 으로 힘이 부족한 원숭이들은 얼음 통째로 핥아 먹었는데, 두 종류의 동물들 모두 식사 후엔 만 족스러운 듯 누워 휴식을 취했다.

정하진 우치동물원 진료팀장은 "9월까지 더 위가 이어지면 특식 제공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 토하고 있다"며 "동물들의 여름나기가 힘겹지 않도록 앞으로도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 나갈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동급생 폭행·협박 10대 출석정지 등은 정당"

피해 중학생 마트서 과자 훔치다 적발 학폭 수면위…법원, '처분 취소' 기각

같은 반 친구의 과자를 뺏은 것도 모자라 가 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10대가 학교폭력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 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군 측이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7 일 밝혔다.

광주 한 중학교에 다니던 A군은 지난해 4월 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출석정지 4일과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특별교육 이수6시간 처분 등을 받았다.

해당 처분이 내려진 학교폭력 사건은 B군이 2023년 6월 마트에서 과자를 훔치다 걸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절도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경위를 묻자 B군 은 "A군의 괴롭힘 때문에 과자를 훔치게 됐다" 고말했다.

B군 측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한 학교는

A군이 수차례 과자를 뺏어 먹고 어깨를 때렸다 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B군은 A군에 대한 공갈·폭행·재 물손괴·강제추행·강요죄로 경찰 조사도 받은 후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기도 했다.

수사 기관은 A군이 "과자를 가져오지 않으 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체육복 바지를 벗 기는 등의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은 A군에 대 해 교내봉사 3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B군 측이 지나치게 가벼운 조치라 고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서부교육지 원청은 처분 수위를 올렸다.

그러자 A군 측은 처분의 수위가 과하고 그 사유도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군 측은 "과자를 먹고 벌칙으로 B 군을 때린 적은 있지만, 가져오지 않았다고 주 먹질을 하진 않았다"며 "체육복 바지를 내린 적 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군 외에도 다른 학생들의 진술 내용을 봤을 때 A군의 가해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은 일부 행위는 하지 않았기 규모등을 조사하고 있다.

에 사과할 수 없고 B군의 거부로 화해가 이뤄지 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는데 이는 화해의 의사 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비춰 봤을 때 징계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시했다. /안재영기자

양산동 축산물 판매점 불…점포 3곳 태워

새벽 시간 광주 한 축산물 판매점에서 난 불 로 인접 점포들이 전소됐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

7일 광주시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 시24분께 북구 양산동 한 축산물 판매점에서 불 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는 소방 당국에 의해 신고 접수 약 46분 만인 오전 3시10분께 완진됐다.

이 불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지만, 불이 난 건 물에 입점한 점포 3개가 소실돼 상당한 재산 피 해가 발생했다.

불은 건물 2층에서 발화한 것으로 잠정 조사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안재영기자

등록번호: 2023-광주광산-0025

⊙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

함평 저수지서 발 묶인 변사체…경찰 "다각도 수사"

함평 한 저수지에서 발이 묶인 변사체가 발견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함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함평군 해보면 한 저수지에서 A (60대)씨의 시 신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의 발은 투명 테이프로 묶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전날 늦은 오후 A씨의 가족으로

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 수색을 진행해 왔다.

A씨의 시신이 발견된 저수지 인근에는 그가 몰고온것으로추정되는차량이세워져있었다. 경찰은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을 토대로 A씨가

스스로 발을 묶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 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안재영·함평=김연수기자

영암 대불산단 '또' 사망사고…지붕 수리 60대 추락사

올해 인명 사망사고가 잇따른 영암 대불산단 에서 또 사망자가 발생했다.

7일 영암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 분께 영암군 삼호읍 한 공장에서 A (60대)씨가 추락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끝내숨졌다.해당공장의협력사직원인 A씨는사고당시안전모를착용한채동료들과공장 의지붕을 수리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현장에 추락 방지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대불산단에선 지난 5월에도 작업

대출상품비교

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올해 1-4월에도 총 4 건의 추락·끼임사망사고가 있었다. /안재영기자

본촌산단서 천공기 전도…인명 피해 無

광주 본촌산단 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천공 기 쓰러짐의 여파로 일대가 정전됐다.

7일 광주시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 시13분께 북구 양산동 본촌산단에서 땅을 뚫는 공사 장비 (천공기)가 전도됐다는 신고가 접수됐 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의 확인 결과 넘어 짐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안재영기자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 직장인신용대출

차량 담보 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010-3929-1403